

경제와 노후생활

■ 경제

- 동향
- 산업 이슈 : 중국 10대 도시군 개발 계획 소개_주강삼각주
- 경제 이슈 : 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

■ 노후생활

- 테마 : 한·미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비교
- 세심록 : 욕망의 즉각적 해결을 원하는 사회
- 북 리뷰 : 파는 것이 인간이다(다니엘 핑크 著)

□ 동향

○ 실물 동향: 2013년 무역흑자 442억 달러 기록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 수출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5,597억 달러, 수입은 0.8% 감소한 5,15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42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수출 : 품목별로 살펴보면 무선통신기기(21.2%), 가전(16.8%), 반도체(13.3%) 등은 호조를 보였으나, 철강(-11.9%)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부진이 지속되었고 LCD(-7.6%) 및 석유제품(-5.9%) 등도 단가하락으로 전년대비 감소함
 - 수입 : 자본재(3.1%) 및 소비재(7.4%) 등은 증가했으나, 원유 가격 하락, 철강제품의 단가하락 등으로 원자재(-3.2%) 수입이 전년대비 감소
 - 무역수지 : 수입은 감소한 반면 수출은 증가세를 보여 2014년 무역수지는 2013년보다 흑자폭이 159억 달러 증가한 442억 달러 흑자 기록

○ 금융 동향: 1월9일 기준금리(2.5%) 동결에 따른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미미

- 한국은행은 작년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내린 이후 2014년 1월9일 8개월 연속 동결을 발표하였고 이로 인한 주식시장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 금리하락 기대로 금리 발표 직전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반등하였으나 기준금리 동결로 금리 변동성 이슈가 사라지면서 고점 매도물량 상승으로 하락 추세
 - 코스피 지수에 대한 삼성전자의 어닝쇼크의 영향력은 미미했으며, 금리발표 전 환율 상승으로 소폭 반등하였으나 외국인 및 기관의 매도물량 증가로 지속적인 하락세
 - 한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월9일 기준금리 발표 직후 일제히 상승(채권가격 하락)하여 전일 대비 0.04% 오른 2.89%로 마감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10월	11월	12월	4/4	1/10
실물 지표	GDP성장률(%)	3.4	2.0	1.5	2.3	3.3	-	-	-	-	-
	제조업산업생산(%)	6.0	0.8	-1.8	-0.8	0.0	3.3	1.3	-	-	-
	소비자물가(%)	4.0	2.2	1.6	1.2	1.4	0.9	1.2	1.1	1.1	-
	실업률(%)	3.4	3.2	3.6	3.1	3.0	2.8	2.7	-	-	-
	경상수지(억달러)	260.7	480.8	99.7	198.0	189.8	95.1	60.3	-	-	-
금융 지표	국고채3년물(%)	3.68	3.13	2.68	2.67	3.01	2.83	2.94	2.94	2.90	2.91
	원/달러(원)	1,083.2	1,126.8	1,084.1	1,122.2	1,112.2	1,066.8	1,062.8	1,056.7	1,062.1	1,064.8
	코스피지수(P)	1983.8	1930.4	1985.4	1932.6	1917.7	2029.7	2009.9	1988.3	2009.3	1946.1

주 : GDP성장률, 제조업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기간 중 평균값임.

□ 산업 이슈 : 중국 10 대 도시군 개발 계획 소개: 주강삼각주

○ 지역 개요

-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는 중국 남부의 핵심 물류 요충지로 광둥성,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등 3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
- 중국 주강(珠江) 하류의 광둥성 9 개 도시,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연결하는 삼각지대로, 주강델타(Pearl River Delta)로도 불리움
- 중국 개혁개방의 최전방 기지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최대 항구에 속하는 심천항(深圳港), 광저우항(广州港)이 자리한 중국의 핵심 물류 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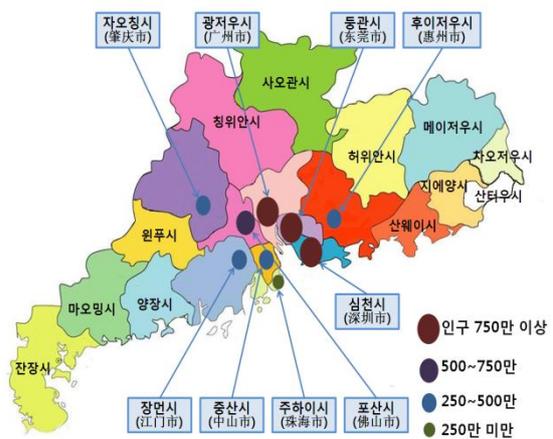
○ 도시 인프라

- 중국 내륙과 동남아, 유럽의 물류통로를 이어주는 핵심지역이며, 개혁개방 건설의 급물살을 따라 도시개발도 빠르게 발전
- 2000~2012 년 사이, 이 지역 물류량은 연평균 11%의 속도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25.6 억 톤 기록, 그 중에서 도로물류는 18.9 억 톤을 차지
- 고정자산 투자는 2008 년에 처음으로 1 조 위안을 돌파하여 2012년에는 약 1.9 조 위안 기록하였으며, 도시화율도 60%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

< 중국 10 대 도시군 >



< 주강삼각주 현황 >



○ 산업 구조

- 통신설비·컴퓨터·전기전자설비, 의류·신발 등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이 공존하면서 관련 제품의 수출액도 빠르게 꾸준히 증가, 최근에는 서비스업 발전도 가속화
 - 제조업 총생산액은 2012년 2조 5,940억 위안, 물류서비스, 금융 등 서비스분야의 총 생산액은 2012년 2조 6,390억 위안 기록
 - 최근 들어 전체 산업생산대비 비중이 제조업은 하락하고 서비스업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소비시장

- 도시화의 발전에 따른 도시주민 소득 및 지출 수준이 빠르게 향상과 더불어 도소매 판매액도 급속으로 증가
 - 2000~2012년 사이 도시주민의 소득은 연 평균 10.8% 속도로 9,800 위안에서 3만 200 위안으로 증가
 - 동기간 도매판매액도 3,069억 위안에서 3조 1,933억 위안으로 10배 정도 확대되었으며, 도소매 총액은 연평균 21.8%의 빠른 속도로 증가

○ 지역경제 발전 계획

- 12·5 기간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 내고,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 확대 모색
 - 12·5 기간에는 제조업 선진화, 고급 서비스업 발전, 전략적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산업기지를 구축하는 목표 설정
 - 또한, 소비촉진 및 효율적 투자를 중심으로 내수를 확대하고 대외무역전략을 전환하여 국제화 수준의 경제지역으로 발전

○ 시사점

- 산업고도화 실현, 주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사업 기회가 존재
 - 하이테크 제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뿐 아니라, 내수 시장 확대에 따른 현지 진출의 기회

□ 경제 이슈 : 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¹

- 중성장시대로의 진입 : 한국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기를 벗어나지만, 고성장의 한계에 봉착하는 중성장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수출에서 내수·서비스업으로의 중심 이동, 가계소비의 더딘 회복, 기업의 투자여력이 미흡
- 스마트 소비의 확산 :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용가치를 추구하는 스마트 소비가 확산되면서, 실질소득이 증가해도 실질소비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고령화 심화, 고용 안정성 저하, 주거비 상승 등은 현재의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절약적인 소비 형태를 유도하고, 이로 인해 소비 회복은 제한적
- 주택시장의 바이플레이션 : 주택시장에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바이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 보면, 초과공급 상태인 수도권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상승세
 - 규모별로 보면, 핵가족화 등으로 대형주택 약세, 중소형주택 강세 예상
- 디레버리징 필요성 증대 : 가계부채와 공공부채가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채무부담 임계치에 근접하면서,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빚을 줄여야 한다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의 필요성이 증가될 것임
 - 가계부채는 2013년 말에 1천 조원을 돌파하였으며, 만성적자가 지속되면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채 또한 2014년에 1천 조원을 돌파할 전망
- 퍼플칼라의 확산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포함한 유연근로시스템이 확대되면서 퍼플칼라(purple collar), 즉 일(파랑)과 가정(빨강)을 병행하는 근로자가 증가할 것임
 - 일-가정 양립 여건이 개선되면서 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층,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베이비붐세대에서도 퍼플칼라 확산 예상

¹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14년 국내 10대 트렌드" 14-1호(통권 572호), (2014. 01. 03.) 에서 발췌 요약.

- **제조업 한류의 개막** :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품질경쟁력과 브랜드경쟁력을 인정받는 동시에 문화 한류의 확산이라는 긍정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한국 제품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임
 - 특히 문화 한류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의 수출이 약진할 것이며, 신규 시장 개척도 활발할 것으로 기대

- **서비스업 명품화 원년** : 서비스산업이 정부지원과 업계의 노력 속에서 발전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부문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문화 및 오락, 의료, 교육, 사업서비스 등에서 명품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며, 특히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의료관광은 세계정상급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 성장세 항상 예상

- **ICT융합산업의 재도약** : 우리나라의 ICT산업은 선진국 추격형 성장경로를 뛰어넘어 세계시장 선도형 ICT융합산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임
 - 제품, 서비스 및 산업 차원에서 ICT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 **위로가 필요한 사회** : 불안감을 달래주는 힐링·멘토·명상·종교와 같은 '위로 산업'이 발달하고 가족·공동체적 가치가 중시될 것임
 - 하지만 위로를 받지 못한 낙오자들이 반기를 들면서 사회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남북경협 3.0 시대의 모색** : 남북경협은 도입기의 1.0 시대와 활성화·조정기의 2.0 시대를 지나 제도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기인 3.0 시대로 진입이 예상됨
 - 남북경협 3.0 시대에는 상생의 경협 시스템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을 위한 여건 조성,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 한국경제 신성장 동력 발굴 등으로 남북경협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이준협 연구위원 외 9인 (2072-6219, sododuk1@hri.co.kr)

□ 테마 : 한·미 개인형 퇴직연금시장 비교

○ 요약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IRP 시장의 규모는 2005년 500.4억 원에서 2013년 6월 6.3조원으로 증가하였지만,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대비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비중은 9% 수준이며 가계금융자산 대비로는 2%에 불과하다.

한편, 미국의 퇴직자산 시장에서는 우리의 IRP에 해당하는 개인퇴직계좌(IRA)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가계 금융자산 대비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IRA는 2008년 3.7조 달러에서 2013년 2/4분기 5.7조 달러로 증가하였다. 미국의 퇴직 자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25.9%에서 2013년 2/4분기 27.4%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가계금융자산 대비 IRA의 비중으로도 2008년 7.9%에서 2013년 2/4분기 9.3%로 증가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기관을 살펴보면, 국내 IRP 시장의 경우 은행권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반면 미국은 자산운용사 및 자산중개업(증권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한국의 경우 2013년 6월 현재 은행점유율이 72.5%로 가장 높고, 증권사의 점유율은 12.7%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13년 2/4분기 현재 뮤추얼 펀드 투자회사, 신탁 및 자산관리 중개업(증권회사) 등의 적립 비중이 각각 46.1%, 38.4%를 차지하고, 은행과 생명보험사의 비중은 각각 9.0%, 6.6%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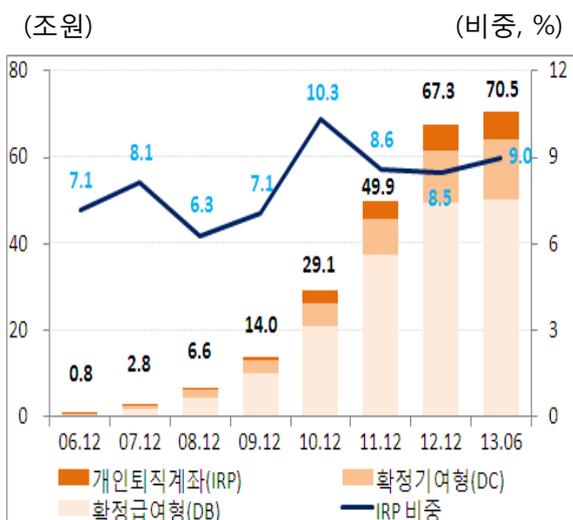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양국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운용 방법을 살펴보면, 한국의 IRP의 운용방식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되어 있어 미국 보다 리스크 회피(Risk Aversion) 성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IRP 적립금의 경우 대부분이 예·적금, 국공채 등 원금보장형에 적립되어 운영되고, IRA의 경우 나이대 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리스크가 큰 주식 및 주식펀드 등에 적립되어 운용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 한·미 개인형 퇴직연금

○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중 개인형 퇴직연금(IRP)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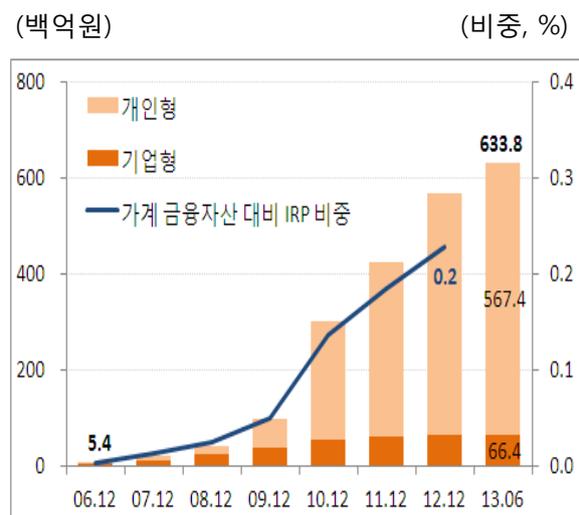
-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대비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비중은 9% 수준
 -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서 규모가 가장 큰 확정급여형(DB)의 규모는 2011년 37.5조원에서 2013년 6월 50.2조 원으로 증가했으나 동기간에 비중은 75.2%에서 71.2%로 하락
 - 최근 확정기여형(DC)을 선호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신규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확장기여형 규모는 2011년 8.1조원(16.2%)에서 2013년 13.9조원(19.7%)으로 증가
- 개인형 퇴직연금(IRP)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가계금융 자산 대비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 개정 근퇴법에서는 노후재원 적립을 충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입자가 퇴직시 급여를 IRP로 이전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IRP로 이전된 급여를 단기간 내 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개인형 IRP의 적립금 증가는 높지 않은 편임
 - IRP 시장의 규모는 2005년 0.05조 원에서 2013년 6월 6.3조원으로 증가, IRP 시장은 개인형과 기업형으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2013년 6월 기준 개인형 IRP 규모가 5.6조원으로 전체 IRP의 약 89% 차지
 - 2013년 6월 기준 가계금융자산 대비 IRP 시장 규모는 0.2%에 불과한 수준

< 국내 퇴직연금시장과 IRP 비중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 국내 IRP 규모와 가계금융자산 대비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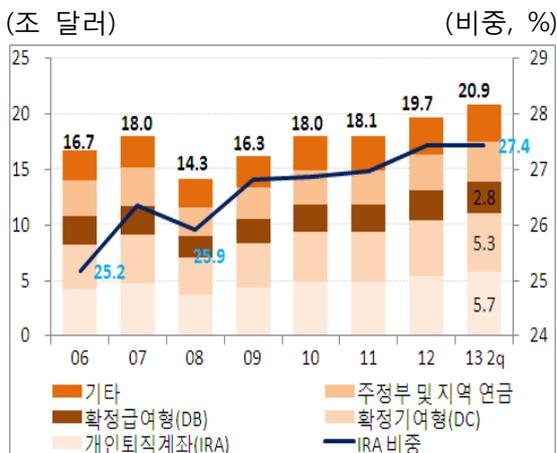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 미국의 퇴직자산 시장에서는 개인퇴직계좌(IRA)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가계 금융자산 대비 비중도 꾸준히 증가

-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은퇴자산 시장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한국과 달리 개인퇴직계좌(IRA)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퇴직자산 시장 규모는 2008 년 14.3 조 달러에서 2013 년 2/4 분기 20.9 조 달러로 약 46.2% 증가
 - 2013 년 2/4 분기 현재 IRA 시장규모는 5.7 조 달러, 확정기여형(DC) 5.3 조 달러, 확정급여형(DB) 2.8 조 달러 순으로 규모가 가장 큼
 - 미국의 퇴직 자산 시장에서 IRA 차지하는 비중이 2008 년 25.9%에서 2013 년 2/4 분기 27.4%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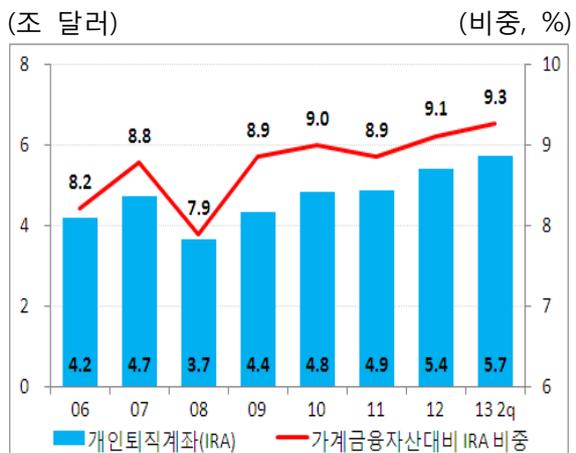
- 미국의 개인퇴직계좌(IRA)도 금융위기 이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가계금융자산 대비 비중도 증가
 - 미국의 개인퇴직계좌(IRA)는 2008 년 3.7 조 달러에서 2013 년 2/4 분기 5.7 조 달러로 증가
 -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전환으로 IRA 의 규모가 커지면서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보편화된 저축수단임
 - 미국 가계금융자산 대비 IRA 의 비중은 2008 년 7.9%에서 2013 년 2/4 분기 9.3%로 증가

< 미국의 퇴직 자산 시장과 IRA 비중 추이 >



자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주 : 기타는 연방정부 연금과 개인 연금 및 연금보험의 합.

< 미국의 IRA 규모와 가계금융자산대비 추이 >



자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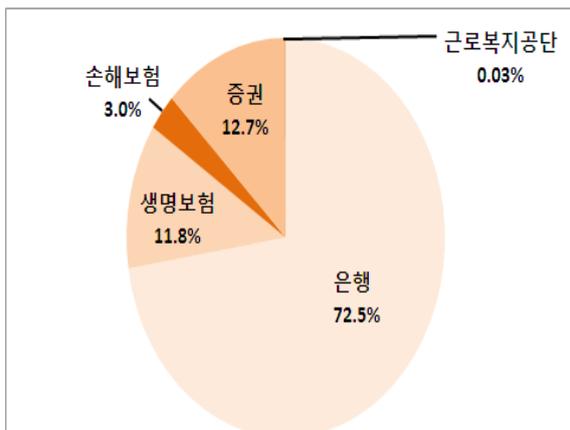
□ IRP 운용 기관 비교

○ 국내 IRP 시장의 경우 은행권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반면 미국은 자산운용사 및 자산중개업(증권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음

- 업권별 비중을 보면, 국내 IRP 는 은행권역의 적립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 국내 퇴직연금시장은 총 55 개 퇴직연금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이 중 은행권역이 16 개, 보험사가 22 개, 증권사 17 개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2013 년 6 월 현재 은행점유율이 72.5%로 상당히 높음
 - 증권사의 비중은 2013 년 6 월 현재 12.7%에 불과
 - 이는 주거래은행과의 관계 등에 따라 은행으로 적립하는 사례가 많으며, 미국과 비교했을시 증권사의 점유율이 매우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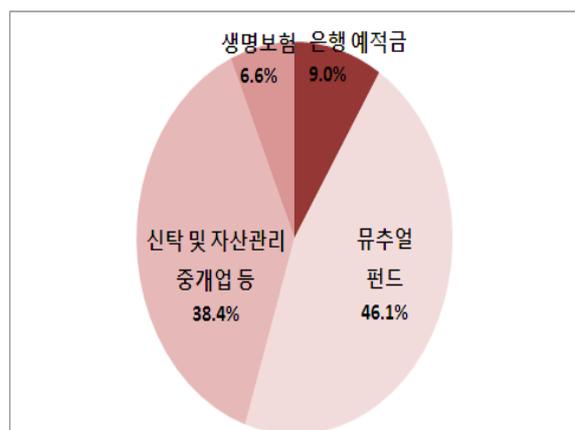
- 반면, 미국의 경우 IRP 시장의 점유율이 은행권보다 자산운용사들, 또는 증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임
 - 2013 년 2/4 분기 현재 뮤추얼 펀드 투자회사, 신탁 및 자산관리 중개업(증권회사) 등의 적립 비중이 각각 46.1%, 38.4%를 차지
 - 은행과 생명보험사의 비중은 각각 9.0%, 6.6%에 불과

< 국내 IRP 시장의 업권별 비중 >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2013 년 6 월 기준임.

< 미국의 IRA시장의 업권별 비중 >



자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주 : 2013 년 2/4 분기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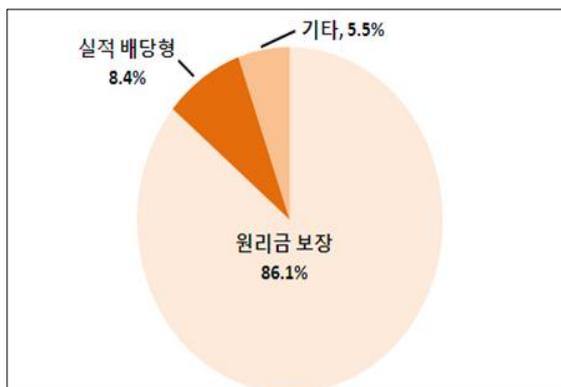
□ IRP 운영 방법 비교

○ 한국의 IRP의 운용방식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편중되어 있어 미국 보다 리스크 회피 (Risk Aversion) 성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국내 IRP 적립금의 경우 대부분이 원금보장형 예·적금 등에 적립되어 운영
- 2013년 6월 현재, 예·적금, 국공채 등 원금 보장형의 적립 비중이 86.1%로 비중이 가장 높음
- 펀드를 포함한 실적 배당형 적립금의 비중은 8.4%에 불과, 대부분 채권형 펀드에 집중되어 리스크 회피 성향이 두드러짐
- 미국의 경우, 나이대 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리스크가 큰 주식 및 주식펀드등에 적립되어 운용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높음
- 30대 IRA 가입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및 주식펀드의 비중이 51.5% 차지
- 60대 IRA 가입자들은 30대 보다 주식 및 주식펀드 비중이 작은 45.7%를 차지, 또한 채권과의 혼합형 펀드의 비중이 22.1%로 보다 30대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성향이 두드러짐

< 국내 IRP 운용 방법 >

(비중, %)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1. 2013년 6월 기준임.

2. 원리금 보장은 예적금, 국공채 등, 실적배당은 펀드/ 주식, 기타는 발행어음 등이 포함.

< 미국의 IRA 나이대별 운용 방법 >

(비중, %)

구 분	30대	60대
주식 및 주식펀드	51.5	45.7
연금펀드	15.5	4.3
주식과채권혼합형	7.9	10.9
채권및채권펀드	6.9	22.1
머니마켓펀드	13.9	13.9
CD 등 기타	4.3	3.0

자료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주 : 2011년 말 기준임.

□ 시사점

○ 향후 국내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도 미국처럼 은퇴자금 마련을 위한 보편화된 저축수단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기존 사업장 퇴직연금제도(DB, DC)와 달리 IRP에서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사업자를 주도적으로 선택 가능
- 따라서 고객들은 IRP 사업자 선정할 때 사업자를 분석하고 평가 후 가입, 또한 사업자의 평판과 브랜드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음
- IRP 는 주식, 해외 채권 등의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효율적인 자산 분배를 통해 개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음
- 저금리 시대에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투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금융교육과 투자 자문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IRP)제도가 향후 부상하게 됨에 따라 증권사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 개인형 퇴직연금(IRP) 도입은 보수적으로 퇴직연금 운용을 하던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보인 증권사에 유리하므로 적극적인 고객 유치 전략이 필요
- 은행의 예·적금 위주로의 투자에서 벗어난 증권사의 고유 업무인 자산운용업을 적극적으로 활용
- 기관과 개인 비즈니스가 융합된 고객유치 전략, 투자권유 대행인 양성을 통한 유치 전략,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전략, 맞춤형 전략과 중장기 서비스 전략 등이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정민 선임연구원 (2702-6220, chungng@hri.co.kr)

□ <참고> 미국의 개인퇴직계좌 IRA 현황

○ 미국은 직장 이동 시 퇴직연금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적립금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도입하였으며, 지금까지 30 여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음

- 1974년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에 의해 처음 도입된 IRA제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계
 - 첫째, 퇴직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둘째,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연금에서 누렸던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 1974년 전통형 IRA의 도입을 시작으로 1978년에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IRA를 제공하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이, 1996년에 SIMPLE IRA가, 1997년에는 Roth IRA 제도 등 다양한 IRA 제도가 도입

-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는 기업이 보험료를 각출하는 방식으로 각출 수준이 매년 조정 가능한 IRA제도
- SIMPLE(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 IRA는 100명 이하의 영세기업의 노·사 쌍방이 보험료를 분담하여 각출할 수 있는 방식
- Roth IRA는 미국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유래된 제도로써 일정액 이상의 고소득자가 전통형 IRA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 활용하며, 보험료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나, 운용 시 및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단, 5년 경과 시 비과세)

○ 현재 미국에서는 IRA를 노후소득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2012년 5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10 가구 중 4 가구는 IRA에 가입하고 있고 총 가입가구 수는 4,890만 가구에 이르고 있음

- 2012년 5월 기준으로 적어도 한 종류의 IRA에 가입가구의 비중은 40.4%임
 - 전통형 IRA를 소유한 가구는 3,94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2.5%를 차지, 대부분 전통형 IRA위주로 운영

< IRA 종류별 소유 인구 수 및 가구 비중 >

종류	도입년도	소유 가구 수 (백만 가구)	비중 (전체 가구 대비)
전통형 IRA	1974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39.4	32.5
SEP IRA	1978 (Revenue Act)	9.2	7.6
SAR-SEP IRA	1986 (Tax Reform Act)		
SIMPLE IRA	1996 (Small Business Job Protection Act)		
Roth IRA	1997 (Taxpayer Relief Act)	20.3	16.8
총 IRA		48.9	40.4

자료: ICI, 2012년 5월 기준.

- 이처럼 미국에서 IRA 가입 비중이 높은 이유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IRA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발생한 퇴직금을 적립하는 통산장치, 즉, 노후를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은퇴저축계좌'라는 인식이 뚜렷하기 때문
 - 또한 다양한 IRA 제도가 존재하고, 세제 등 제도적으로 IRA 가입 혜택이 있으며, 가입요건에 대한 제약이 적고 퇴직연금과 IRA 제도에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임
 - 또한, Investment Company Institute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IRA의 인출분석결과 57%는 퇴직 전이므로 인출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22%는 퇴직 후에도 인출하지 않았음
 - 또한 21%는 중도인출을 하였으나 이중 퇴직 후로 인출한 비중은 16%, 퇴직 전 인출 비중 9% 불과

□ 세심록(洗心錄)

○ 욕망의 즉각적 해결을 원하는 사회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나친 소비문화로 인해 소비의 사이클이 극단적으로 빨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빠르게 고속도로를 달려야 하고, 고속을 넘어 광속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결제하면서 문명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사는 듯한 착각을 한다. 더군다나 온갖 물건들이 모여 있는 백화점에서 편리하게 소비할 때 자신의 삶이 풍요롭다고 느끼기까지 한다. 필요와 욕구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즉각적인 충족에 중독되면 영속적인 만족이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오로지 끊임없는 욕망과 욕망에 대한 충족만을 바라보게 되며 그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진다. 마치 병적인 식탐처럼 소비자들은 즉각적인 즐거움을 위해 물건을 구매하지만 잠깐의 시간만 지나도 금새 실증을 내거나 버리는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큰 편리함을 바라면서 돈을 지불하지만, 결국 불편함을 견딜 수 없어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 또한 현대 문화가 우선시하는 능률이나 창조성, 개인적 만족 등의 우울한 단면일지도 모른다.

필요와 욕구의 즉각적인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이 돈과 함께 얽히고설켜 우리의 문화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따라서, 소비문화에 중독된 사람들이 망쳐놓은 것들에 대해 이제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당장 가게로 달려가기보다 느린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근본에 좀 더 다가서야 한다.

자전거 타기를 적극 추천하는 크리스 칼슨이란 사람이 있다. 그는 자전거 타기가, 더 정확히는 자동차를 사고 이용하는 대신 자전거 타기를 선택하는 것이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고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든 행동을 버리는 결단'이라고 말한다. 물론 이런 적극적인 선택만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정답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번쯤은 우리의 소비문화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북 리뷰

- 제목: 파는 것이 인간이다

- 저자: 다니엘 핑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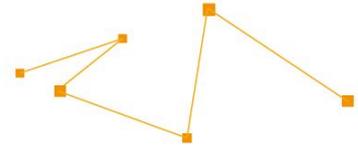
-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손꼽히는 다니엘 핑크는 예일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백악관 등에서 활동. 현재 경제 변화와 기업전략, 미래 트렌드 등을 주제로 강의와 집필 활동을 하고 있음.

○ 주요 내용

- 사람들은 인터넷의 출현이 세일즈맨과 같은 중간 상인들의 몰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세일즈 활동은 여전히 경제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
 - 미국은 근로자 9명 중 1명, 일본은 근로자 8명 중 1명이 타인이 뭔가를 구매하도록 만드는 세일즈 관련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 세일즈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도 일하는 시간의 40%이상을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영향을 미치는 비판매 세일즈(non-sales selling) 활동에 사용
- 전통적인 세일즈와 비판매 세일즈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기업가 정신, 유연성, 그리고 교육 및 의료 분야의 부상에서 찾을 수 있음
 - IT기술의 발전은 기업 설립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발시켰고,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한 가지 일만 할 수 없고 세일즈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해야 함
 - 근로자도 한 가지 일을 하는 데 머물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있고, 여기에는 전통적 세일즈와 무수한 비판매 세일즈 활동이 포함
 -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은 교육 서비스와 헬스케어 분야이고, 이 분야의 직업들은 모두 비판매 세일즈 활동과 관련되어 있음
- 다른 사람을 움직여 그들이 가진 것과 자신이 가진 것을 교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동조(Attunement), 회복력(Buoyancy), 명확성(Clarity) 등 3가지 자질이 필요
 - 동조하기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왜 그들이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
 - 비록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불굴의 정신과 쾌활한 성격을 기반으로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 세일즈맨은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함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 · 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WV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Tel. 02-2072-6246,6309
Fax. 02-2072-6249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